

# 일본 주자학과 큐코사(吸江寺) - 존왕론의 탄생과 굴절 -

이호윤\*  
hopiti777@hanmail.net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큐코사와 야마자키 안사이   |
| 2. 스오우(周防) 오오우치씨(大内氏)와 조선 | 3.1 고치 큐코사         |
| 2.1 스오우의 실력자 오오우치씨        | 3.2 야마자키 안사이와 큐코사  |
| 2.2 오오우치씨와 조선             | 4. 야마자키 안사이와 존왕론   |
|                           | 5. 나가며-존왕론의 탄생과 굴절 |

主題語: 고치 큐코사(Kochi Kyukoji Temple), 야마자키 안사이(Yamazaki Ansai), 일본 주자학(Neo-Confucianism of Japan), 오오우치씨(Ouchi clan), 남학파(Southern Neo-Confucianism School of Japan)

##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17세기 토쿠가와 일본의 주자학자인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斎; 1619-1682)는 대의명분(大義名分)과 절의(節義)를 중시하고 왕권을 존중한 ‘존왕사상가(尊王思想家)’로 알려져 있으며 야마자키 안사이의 사상은 막말 유신기의 존왕양이사상의 원류라고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와츠지 테츠로(和辻哲朗)는,

조화신(造化神)은 인체신이며 황조(皇祖)이다. 이런 입장에서 안사이는 신대기가 ‘우리나라 제왕의 실록’이며, ‘우리 대군의 혈맥의 본원’으로 시작하여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통’을 밝혔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었다. 이 견해는 황통 안에서 조화신의 혈맥을 발견하는 것으로 천황의 현신성을 천인유일의 설에 기반을 삼은 것이다. (중략) 이것은 우리나라의 제1기의 천황존숭의 전통을 소박한 신화적 표현으로부터 이론적인 표현으로 바꿔 제1기보다도 한층 더 강한 힘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sup>1)</sup>

\* 하얼빈사범대학 동방언어문화학부 교수

1) 造化神は人体神であり皇祖である。この立場において彼は、神代紀が「我邦帝王の御実録」であり、「我大君の御血脈の本源」より始めて「天壤無窮の皇統」を明かにしたものであることを、力説したの

라고 하고 있으며 마루야마 마사오(丸山正男)도

‘천하유일의 조국(肇國)의 유래와 그것을 기초로 군신부자(君臣父子)의 대의를 천명해 존왕척폐(尊王斥霸)와 화이내외(華夷内外)의 명분을 현창한 안사이학의 ’진수(眞髓)‘는 토쿠가와 2세기의 성상(星霜)을 관통해 막말존양론(幕末尊攘論)이 되어 분출해 메이지유신의 홍업(鴻業)을 익찬(翼贊)했다고 하는 논조는 히라이즈미(平泉)씨의 편저만이 아니라 이토가 쿠니지로(糸賀国次郎)『해남 주자학 발달의 연구(海南朱子学發達の研究)』(소화10년), 고토 사부로(後藤三郎)『안사이 학통의 국체사상(闇齋學統の國體思想)』(소화16년), 전기학회편(伝記学会編)『아마자키 안사이와 그 문류(山崎闇齋とその門流)』(중보판, 소화18년) 등의 연구서의 기본 저류를 이루고 있어 하나 하나 인용하기도 번거러울 정도이다. 게다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논조는 결국 ‘비상적(非常的)’ 문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중략) 즉 막말 존양론의 계보로써 통상 거론되는 미토학(水戸学)도, 히라다파(平田派) 국학도, 여기에서는 결국 모두 안사이로부터 와카바야시 교사이(若林強齋)의 보난켄(望楠軒)학통에의 흐름, 또는 스이카신도(垂加神道)의 발전 속에서 정의되고 관계되고 있다.<sup>2)</sup>

라고 하여 아마자키 안사이의 사상, 특히 이른바 ‘존왕사상’이 후기미토학이나 히라다파 국학에 영향을 끼쳤고 막말유신기의 ‘존왕양이사상’ 및 메이지유신의 사상적 원류가 되었다고 하는 평가가 전전의 연구는 물론 전후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sup>3)</sup> 또한 이러한 존왕사상가로서의 평가와 더불어

であった。この見解は皇統そのものの内に造化神の血脈を見るのであって、天皇の現神性を天人唯一の説によって基礎づけたことになる。(중략) これはわが国の第一期における天皇尊崇の伝統を、素朴な神話的表現から、理論的な表現に移し、第一期におけるよりも一層強い力を以て主張したものといはなくてはならない。和辻哲郎(1952)、pp.421-422

- 2) 天人唯一の肇國の由来と、それに基づく君臣父子の大義を闡明し、尊王斥霸と華夷内外の名分を顕彰した闇齋学の『真髓』は、徳川二世紀の星霜を貫いて、幕末尊攘論となって噴出し明治維新の鴻業を翼賛した、というような論調は、前記、平泉氏(平泉澄)の編著だけではなく、糸賀国次郎『海南朱子学發達の研究』(昭和一〇年)、後藤三郎『闇齋學統の國體思想』(昭和一六年)、伝記学会編『山崎闇齋と其門流』(増補版、昭和一八年)等々の研究書の基本底流をなしており、一々引用の煩に堪えない。しかも注意すべきは、こうした論調はけっして『非常時』の文献に限られてはいないことである。(中略) つまり幕末尊攘論の系譜として通常あげられる水戸学も平田派国学も、ここでは結局すべて闇齋から若林強齋の望楠軒學統への流れ、あるいは垂加神道の発展のなかに位置づけられ、関係づけられるのである。丸山真男(1980)、pp.607-608

- 3) 또한 『일본주자학과 조선(日本朱子学と朝鮮)』을 저술하여 조선 주자학이 일본 주자학 형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아베 요시오(阿部吉雄)도 아마자키 안사이는 국사(国史)를 연구하고 신도(神道)를 연구해 신유합일(神儒合一)을 주장하고 외래의 주자학을 완전히 일본화해 결국 그 문류로부터 토쿠가와 봉건제를 타파해 일군만민주의(一君万民主義)를 주장하는 사회혁명가를 다수 배출하게 되었다' 라고 평가하여 아마자키 안사이가「국사, 신도」를 연구하여 주자학을 일본화 하였고 그의 영향을 받은 일군만 민주의 존왕사상가를 배출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阿部吉雄(1965)、pp.235-236

‘안사이가 신도를 깊게 믿어 스이카(垂加)의 일파를 연 것은 이 민족적 자각정신의 발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군의 명으로 삼사탁선(三社託宣)을 노래한 정훈(庭訓) 가풍이 깊게 향기 배여 있었던 안사이에게 이 민족적 자각과 신도와의 결합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생각된다’<sup>4)</sup>

라고 하는 평가에서 보이듯 아마자키 안사이를 ‘민족적 자각을 발현’시킨 민족주의 사상가로 보는 시각도 강하다.

이렇듯 아마자키 안사이는 이른바 ‘존왕론’을 주창한 ‘민족주의적’ 사상가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막말 지식들의 사상적 원류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본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아마자키 안사이가 주자학을 접하고 연구하여 이른바 ‘존왕 사상’과 아마자키 안사이 학파라는 일가를 이루게 되는 안사이 사상의 형성 장소가 고치시(高知市)의 큐코사(吸江寺)이다.

그런데 아마자키 안사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로 존왕론과 메이지유신과의 관계, 조선 주자학과 아마자키 안사이의 영향관계, 스이카신도 및 안사이 학파 연구 등이 대부분이며 아마자키 안사이의 사상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장소인 고치 큐코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전기 조선왕조와 가장 활발한 교류를 한 세력 중 하나였던 지금의 야마구치(山口) 지역인 스오우(周防)의 실력자 오오우치씨(大内氏)의 역사를 살펴보고 오오우치씨와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스오우에 전파된 주자학과, 그로 인해 고치 큐코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남학파(南学派, 海南学派)와 아마자키 안사이의 관계 및 근세, 근대의 큐코사의 모습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에도시대 주자학적 존왕론을 주창한 아마자키 안사이의 사상 내용과 근세-근대기 존왕론의 사상적 굴절도 살펴보고자 한다.

## 2. 스오우(周防)오오우치씨(大内氏)와 조선

### 2.1 스오우의 실력자 오오우치씨

일본 주자학의 개조(開祖)는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로 알려져 있다.<sup>5)</sup> 후지

4) 關齋が神道を深く信じ、垂加の一派を開いたのはこの民族的自覚精神の発現であつた。幼時から父君の命で三社託宣を誦した庭訓家風が深く薫染していた關齋にとってはこの民族的自覚と神道との結合は極めて自然なものであつたと思われる。阿部隆一(1980)、p.573

와라 세이카는 지금의 효고현인 하리마노쿠니(播磨国) 출신으로 일본의 전국시대 혼란기에 가족을 잃었고 교토의 쇼코쿠사(相国寺)의 승려가 되었다. 그리고 1590년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했던 조선 유학자이자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형인 허성(許箴, 1548-1612)과의 교류로 주자학에 눈뜨게 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되어 교토 후시미성에 억류되어 있었던 성우계(成牛溪, 1535-1598)의 제자인 조선 유학자 강항(姜沆, 1567-1618)과의 교류로 주자학을 확신하였다. 그 후 일본을 통일한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가 천하를 경영하기 위해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일본에서 최초로 유자 선언을 하고 유학자의 의관을 입고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천하 경영을 강의하여 일본 주자학의 개조로 불리운다.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인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은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참모가 되었으며 하야시 라잔 집안(林家)은 대대로 토쿠가와 막부의 참모가 되어 학문과 외교전반을 담당했다. 이러한 후지와라 세이카로부터 하야시 라잔, 마츠나가 샤쿠고(松永尺五, 1592-1657), 키노시타 준안(木下順庵, 1621-1699),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로 이어지는 학맥을 경학과(京学派)라고 부르는데 경학과는 일본주자학을 대표하는 학파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후지와라 세이카로부터 시작하는 경학과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주자학과 있는데 바로 고치 큐코사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남학과(南学派) 또는 해남학과(海南学派)라고 불리는 학파가 그것이다. 남학파는 조선전기 조선왕조와 활발한 교류를 하였으며 스스로 백제의 후손이라고 자처한 스오우의 실력자 오오우치씨의 가신 미나미무라 바이켄(南村梅軒, ?-1579?)으로부터 시작된다.

오오우치씨는 중세 전기 스오우의 재청관인(在廳官人)으로 처음 역사에 등장하여 14세기 내란을 거쳐 일본 추고쿠(中国)지방 서부 및 큐슈북부를 세력권으로 하게 되었다. 오오우치씨는 헤이안 시대 후기인 1152년 처음 이름이 보이는 타타라(多々良)씨의 후예이다. 타타라씨는 일본 고대 유력 집안의 출자를 기록한 책인 『新撰姓氏録』에 가야계로 소개되는 집안이다. ‘타타라’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한반도와 관계성을 지적하고 있는 등 한반도를 그 연원으로 하는 집안으로 보인다. 오오우치씨는 백제 성왕의 제3왕자인 임성태자(琳聖太子)의 후예라고 자처하였다. 『大内多々良氏譜牒』 등에 의하면 오오우치씨의 선조는 백제 성왕의 제3왕자인 임성태자이며 임성태자는 611년 스오우국 사와군 타타라하마(佐波郡多々良浜)에 도착하였고, 그 후 오사카로 가서 쇼토쿠태자(聖德太子)를 알현하고 쇼토쿠 태자로부터 스오우의 오오우치현(大内県)의 지배권과 타타라라는 성을 하사받았다고 되어있다.<sup>5)</sup>

5) 후지와라 세이카의 사상에 관해서는 이호운(2014)를 참조

6) 松岡久人(2011), pp.3-6

오오우치씨는 당시 일본 무가들이 일반적으로 ‘겐페이토키츠(源平藤橘)’나 혹은 중앙 귀족의 후예라고 자칭한 것과는 달리 한반도 고대 왕국인 백제의 후예를 칭한 것이다. 타타라씨는 『신찬성씨록』에 가야계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오오우치씨의 세력이 조선왕조와의 교류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보다 훨씬 큰 영토와 역사, 문화를 향유했고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백제의 후손을 자칭하는 것이 조선과의 교류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오우치씨는 헤이안 말기의 당주(堂主) 타타라 모리후사(多々良盛房)가 스오우지역의 실력자로 등장하여 ‘스오우스케(周防介)’로 임명되었고 그 후 타타라 모리후사가 ‘오오우치스케(大内介)’를 자칭하여 오오우치라는 성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조시대인 1391년 야마나 우지키요(山名氏清)의 반란(明德の乱)에서 활약하여 이즈미(和泉)·키이(紀伊)·스오우(周防)·나가토(長門)·부젠(豊前)·이와미(石見) 등 6개국을 지배하는 수호대명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즈음부터 조선왕조와 독자적으로 무역을 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여 전성기를 이루었다.<sup>7)</sup>

오오우치씨의 세력권은 일본의 대동아시아 교역의 중심 항구가 위치하는 곳으로 그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15-16세기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오오우치씨는 조선, 명, 류큐와 계속적인 교류를 하였고 이러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그 자체가 오오우치씨 세력 존속의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sup>8)</sup> 오오우치씨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조선과 교류를 하여 교린 상대 중 일본국왕 다음의 대우를 받는 거추사(巨酋使)로 분류되었으며 거추사 중에서도 특별한 우대를 받는 존재로 성장하였다.<sup>9)</sup>

한국 사료에 오오우치씨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379년 오오우치가의 제25대 당주 오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 1356-1400)가 군사 186인을 고려에 보내 왜구와 싸우게 했다는 기록이다.<sup>10)</sup> 고려 말부터 시작되었던 왜구 문제는 조선초기에도 조선 조정이 가장 신경을 썼던 외교문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4세기 후반 적극적으로 왜구대책을 세우고 조선과 융화적 우호적 관계를 구축한 것이 무로마치 막부의 큐슈 통치를 담당했던 큐슈탐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 1326-1420)과 스오우의 오오우치씨였다. 큐슈탐다이 이마가와 료순은 탐다이 취임 다음해인 1372년 추고쿠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오오우치 요시히로의 협력으로 다자이후(大宰府)의 정서부(征西府) 공략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이마가와 료순, 오오우치 요시

7) 松岡久人(2011), pp.7-29

8) 須田牧子(2011), p.12

9) 須田牧子(2011), p.33

10) 『高麗史』卷134、列傳47、辛禩5年 5月條

五月、倭焚掠豐川、殺知州事柳滋、按廉金侃、火官廨民舍、虜六十餘人(중략) 韓國柱還自日本、大内殿義弘、遣朴居士、率其軍一百八十六人、偕來

히로의 협력관계는 일본 국내정치에 머무르지 않고 고려와의 통교에 까지 미쳤다. 1378년에는 이마가와 료순이 사승(使僧) 신코우(信弘)와 함께 군사 69명을 고려에 보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1379년에는 오오우치 요시히로가 사신 박거사(朴居士)에게 군사 186명을 딸려 보내 고려를 침입한 왜구 토벌에 활약했다. 이것은 왜구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던 고려왕조가 무로마치 막부보다 큐슈탐다이 이마가와 료순과 스오우 오오우치씨를 중요시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1)</sup> 이후 이마가와 료순과 오오우치씨의 관계가 틀어지고, 1395년 이마가와 료순이 큐슈 탐다이에 서 해임 된 후 오오우치씨가 신왕조인 조선왕조와의 통교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이러한 오오우치씨와 조선조정과의 외교라인을 이용하여 무로마치 막부 3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 在, 1368-1394)가 조선과의 외교관계 구축에 나서게 된다.<sup>12)</sup>

1399년 오오우치 요시히로의 사절과 함께 ‘일본국대장군(日本國大將軍)’ 아시카가 요시미츠의 사절단이 조선을 방문했다. 그리고 같은 해 이에 대한 보빙사(報聘使)로 최운사(崔云嗣)가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로서 ‘국왕사(國王使)’의 교환이라는 형태로 조일외교관계가 확립되었다. 조선 초기 조일외교관계 구축에 매개체 역할을 하였고 또한 그 이후로도 일본의 대조선 교류의 큰 축을 담당했던 것이 오오우치씨였던 것이다.<sup>13)</sup> 오오우치씨로서도 무로마치막부의 조선외교 대행자가 되는 것은 공식적 외교라인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조선과 무역관계 구축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고 조선전기 조선왕조의 가장 중요한 공식 외교 상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 2.2 오오우치씨와 조선

오오우치씨와 조선왕조와의 교류를 살펴보면 조선건국(1392) 초기부터 오오우치씨가 멸망(1557)하기 직전인 1551년 까지 조선왕조와 오오우치씨는 다방면으로 교류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1> 조선후기 조선왕조가 토쿠가와 막부에 파견한 통신사가 12회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선과 오오우치씨의 교류는 조선후기 통신사를 통한 교류를 훨씬 뛰어 넘는 횟수를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와 토쿠가와 막부의 12회의 통신사 교류는 양국에 방대한 문화적 영향을 미쳤던 것을 상기하면 이 교류를 통한 영향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1) 橋本雄(2010), pp.109-110

12) 무로마치 막부 성립 후 조일관계를 주도했던 큐슈탐다이 이마가와 료순의 실각 이후 오오우치씨는 조선과의 교류의 선두에서 활약하기 시작하는데 이마가와 료순의 실각이 오오우치씨와의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須田牧子(2011), p.55

13) 橋本雄(2010), pp.109-11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나 있는 조선과 오오우치씨의 교류는 주로 조선이 오오우치씨에게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을 사급(賜給)하고 오오우치씨는 조선왕조에 토산물, 특산물을 바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표1>에서 보이듯 오오우치씨는 조선왕조 측에 주로 사찰 건설 등 종교적 명분으로 『대장경』을 요청하였는데 조선국왕이 사급한 『대장경』은 불교국가였던 일본에서 천황가, 공가, 무로마치막부, 유력 다이묘 등 귀족 및 무사 계급이 탐내는 최고급 물품이었다. 일본은 무로마치시대에 들어와 산간불교에서 민간불교로 변하여 많은 사찰들이 새로 건립 되었고, 또 내란 중에 소실된 사찰을 재건하는 일이 많았다. 이 경우 그들은 새로운 사찰에 『대장경』이나 고려법종을 비치하고자 하였다. 『대장경』은 불경으로서의 종교적 기능도 하였지만 막부나 호족들의 권위확립에 하나의 상징으로서도 기능하였다.<sup>14)</sup>

조선으로서는 일본과의 통교의 목표가 왜구재발 방지와 같은 평화 유지에 있었으므로 일본의 제 세력을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대장경』 사급 요청을 잘 들어 주었는데 세조는 특히 일본의 『대장경』 요청에 잘 응해 주어 일본에서 ‘불심(佛心)의 천자(天子)’로 불리기도 했다.<sup>15)</sup> 특히 무로마치막부 제8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正, 在1449-1473) 이후는 주로 특정 사원을 위한다는 명목의 『대장경』 청구(請經)행위가 빈번해 진다. 당시 『대장경』의 가치는 오오우치씨가 조선국왕에 바치는 진상품 비용 총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무역품의 가치는 약 250-300貫文<sup>16)</sup> 정도였다.<sup>17)</sup>

이러한 조선과의 무역에서 오오우치씨의 사절단은 임진왜란 이후 부산 왜관으로 한정되었던 일본 사행단의 행동반경과는 달리, 한양까지 가서 조선국왕을 알현하는 등 삼포-한양 루트를 오가면서 다양한 무역을 행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의 공식적 무역은 사행무역(使行貿易), 공무역(公貿易), 사무역(私貿易)이 있었고 이 외에 밀무역도 존재하였는데 조선왕조와 공식적인 교역관계를 맺고 있었던 오오우치씨는 이러한 공식적인 모든 무역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조선과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한 무력을 바탕으로 밀무역도 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익을 노리고 오우닌의 난이 한창이던 1473년, 1474년, 1478년에는 오오우치씨 사절로 위장한 위사(僞使)가 나타나기도 하였다.<sup>18)</sup>

14) 국사편찬위원회편(1995), p.404

15) 中村榮孝(1965), pp.181-182

16) 1貫文이 1000文이고 1문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금 가치로 1000원 정도였다고 어렵잡으면 『대장경』의 가격은 현재의 가치로 약 2억 3천만원에서 3억원에 달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7) 橋本雄(2010), pp.125-126

18) 오오우치씨의 사절이라고 자칭한 이 세 번에 걸친 사절은 1479년 오오우치 마사히로가 정식 사절을 보내 자신들이 보낸 사절이 아니라고 하여 위사인 것이 밝혀졌다.

『朝鮮王朝實錄』成宗5年 4月 丁未

大內殿入王都後, 專不通信於貴國, 近間稱大內使往來者, 皆虛也. 本曹, 仍出示丁酉年大內使書契一張, 見之曰, 此亦詐也. 無貴國右符, 其詐可知. 歷示邇來賜物之數, 答曰, 雖非眞使, 貴國待我那衍, 厚意可知.

당시 조선의 일본에 대한 주된 수출품은 면포 등의 섬유제품과 회문석·호랑이가죽·표범가죽 등 장식품 그리고 인삼·꿀·오미자 등과 같은 약재와 더불어 서적, 문방구류도 일본으로 들어갔다.<sup>19)</sup>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조대에 대마도주와 교토의 거추사의 요청에 따라 『論語』, 『三體詩』, 『四書五經』이 기증되었으며<sup>20)</sup> 성종대에는 일본국왕사의 요청에 의해 『論語』, 『孟子』, 『得效方』, 『東坡』, 『杜詩』, 『黃山谷』, 『詩學大成』 등의 유교서적과 시집이 사급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1)</sup> 오오우치씨의 경우 제 31대 당주 오오우치 요시타카(大内義隆, 1507-1551)와 조선 예조참판 임권(任權, 1486-1557)과의 왕복문서에 오오우치 요시타카가 조선에 『대장경』을 요청하면서 한편 『五經』의 주자신주(朱子新註)를 요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22)</sup> 이러한 유교 경전은 선승들에 의해 불교의 부수학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중세의 하카세가(博士家)에서 연구되었는데 학문을 숭상하였던 오오우치 요시타카도 조선에 누차 서신을 보내어 『대장경』 및 『오경집주(五經集註)』 물시계 등을 요청하였고 거액을 들여 명나라에도 사절을 파견하여 서적을 수입하여 연구하였던 것이다.<sup>23)</sup> 일본의 대아시아 교류의 거점인 야마구치라는 지역적 배경, 조선과의 적극적 교류라는 역사적 배경 하에서 오오우치씨의 영지인 야마구치 지역에도 주자학이라는 싹이 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 3. 큐코사와 야마자키 안사이

#### 3.1 고치 큐코사

고치 큐코사(吸江寺)는 일곱 차례에 걸쳐 천황의 국사(國師)를 지냈으며 교토 텐류사(天龍寺)를 창건한 카마쿠라시대 고승 무소 소세키(夢窓疎石, 1275-1351)가 현재의 고치현인 도사

大内聞之。亦必感祝。吾當細傳。

19) 국사편찬위원회편(1995), p.397

20) 『朝鮮王朝實錄』世祖5年 8月 壬申  
日本國對馬州太守宗成職, 遣使求論語, 三體詩, 賜之.  
『朝鮮王朝實錄』世祖13年 正月 乙亥

日本國京城湍河, 源朝臣義堯, 遣僧道閑等, 獻土物并佛像一軀, 對馬州守護代官宗盛直, 遣仇難麗毛, 求四書五經, 命以典校署所藏, 送之.

21) 『朝鮮王朝實錄』成宗20年 8月 辛亥  
禮曹啓曰, 本國使臣求書冊, 只與論語孟子何如. 傳曰, 醫方所以活人也, 今客人所索多, 而只許此書, 無乃不可乎. 如得效方, 東坡, 杜詩, 黃山谷, 詩學大成等冊許之, 無乃可乎.

22) 寺石正路(1934), pp.202-203

23) 寺石正路(1934), p.208



(土佐)에 낙향하여 1318년 오대산 기슭의 경승지에 큐코암(吸江庵)을 세운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당시 도사국의 중심지는 지금의 고치시가 아닌 율령시대의 코쿠후(國府)가 있던 곳으로 지금의 나가오카군 코쿠후무라(長岡郡國府村)에 위치해 있었다. 무소 소세키가 큐코암을 창건한 곳은 이 코쿠후로부터 서남쪽으로 23리 떨어진 지금의 고치시 고다이산(五臺山) 자락이다. 지금은 고치시 시내에 위치해 있지만 큐코암 창건 다시는 서강(西江)이라고 불리는 한적한 곳으로 우라도만(浦戸灣)이 내려다 보이는 선사(禪寺)를 건립하기에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큐코암의 큐코라는 이름은 중국 당나라 시대 선승들의 선문답에서 유래한다. 당나라 시대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에게 선학을 배워 통달한 방온거사(龐蘊居士, ?-808)가 마조도일과 한 선문답이 그 것이다. 방온거사가 구법(求法)을 위해 마조도일에게 불법에 대해 물으니 마조도일이 ‘서강(장강) 물을 한 입에 들이마시면 불법에 대해 대답해 주겠다(一口吸盡西江水)’라고 했다. 이러한 구법과 해탈의 어려움을 강에 비유한 마조도일의 말을 듣고 방온거사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강물에 던져 버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sup>24)</sup> 큐코암은 세속을 버리고 끊임없는 수행으로 해탈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이름인 것이다.

무소 소세키의 뒤를 이어 기도 슈신(義堂周信, 1325-1388), 젯카이 츠신(絶海中津, 1334-1405)을 비롯한 수많은 고승들이 큐코암의 법통을 이어 남해의 명찰로 이름을 날렸으며 아시카가(足利) 장군과 수호(守護) 호소카와씨(細川氏)의 보호로 사찰의 지위도 높아졌고 사찰소유의 영지도 확대되었다. 에도시대(江戸時代)가 되면 고치 지역의 영주 아마우치 카츠토요(山内一豊, 1545-1605)의 양자 쇼난 소케(湘南宗化, 1586-1637)가 교토 묘신사(妙心寺)로부터 와서 절을 중흥시켜 ‘큐코사’라고 이름 붙였다. 그 후에도 아마우치씨에 의한 사령(寺領)의 기진이 계속되어 도사국의 각종 사원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sup>25)</sup> 큐코사는 현재 고치현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의 초대 정이대장군 아사카가 타카우지(足利尊氏, 1305-1358)의 수호불이었다고 전해지는 지장보살상은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3.2 아마자키 안사이와 큐코사

1619년 교토(京都)에서 태어난 아마자키 안사이는 15세에 임제종(臨濟宗) 사찰인 교토 묘신사(妙心寺)에 들어갔으며 19세에 임제종 묘신사와 도사 큐코사로 옮겨 수행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의 야마구치 지역인 스오우의 오오우치씨는 무로마치 시대에 조선을 비롯한 대

24) 寺石正路(1934), p.74

25) 吸江寺発行(2010), pp.4-13

아시아 교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세력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중국과 조선의 문화를 향수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찍부터 주자학이 전파될 수 있었다.

무로마치시대 일본에서 처음으로 신유학 즉 주자의 신주를 강의한 것은 오오우치씨의 영지인 스오우 아마구치 출신 승려 케이안(桂庵)으로 알려져 있다.<sup>26)</sup> 케이안은 1427년 스오우 아마구치에서 태어나 9세에 교토 난젠사(南禪寺)에서 수학하였고 26세가 되던 해 삭발하여 선승이 되었다. 케이안은 소년시절 사서(四書)를 배우고 송유(宋儒)의 학과 한시에 능통하였고 대명 사절로 참가하여 5,6년간 명나라에 체재하며 명의 사대부들과도 교류하였으며 외교 공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1473년 케이안이 명나라에서 귀국하였을 때<sup>27)</sup> 교토는 오우닌의 난이 일어나 전국시대에 돌입하여 폐허가 되어 그는 아마구치의 에이후쿠사(永福寺)를 비롯하여 사츠마(薩摩) 등 서국 일대 사찰을 유랑하였다. 이 때 케이안의 학문이 아마구치에 전해졌고 오오우치씨 세력이 커짐에 따라 그 문학과 융화하여 스오우 지역에서 주자학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케이안은 문하에 많은 제자를 두었는데 그 제자 중 한 명이 오오우치씨의 가신인 미나미무라 바이켄이다.<sup>28)</sup>

조선과의 교류에 기반하여 전성기를 누리던 오오우치씨는 일본 전국시대의 혼란기에 이즈모(出雲)의 아마고 츠네히사(尼子經久)와 그의 손자 하루히사(晴久), 치쿠젠(筑前)의 쇼니 스케모토(少貳資元)·후유히사(冬尚) 부자 등과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봉고(豐後)의 오오토모 요시아키(大友義鑑), 아키(安芸)의 모리 모토나리(毛利元就) 등과도 전투를 벌여 세력이 약화되어 갔고 1540년~41년의 이즈모 원정에서의 패배로 오오우치씨의 세력은 급속하게 쇠퇴하여 결국 1557년 오오우치씨는 멸망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sup>29)</sup> 전국시대 혼란기에 오오우치씨가 멸망하자 케이안 문하의 아마구치의 유자 미나미무라 바이켄은 전란을 피하여 도사로 이주하여 큐코사에서 주자학을 강의한 것이 남학(해남학파)의 시작이었고 도사에서 주자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오우치씨가 멸망할 무렵의 도사지역 영주는 도사이치조가(土佐一条家)였는데 도사이치조가와 오오우치씨는 혼인 및 양자 입적 관계로 맺어진 밀접한 관계였다. 도사이치조가는 관백가(關白家)인 교이치조가(京一条家)에서 분파되어 도사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관백인 이치조 노리후사(一条教房, 1423-1480)의 차남 이치조 후사이에(一条房家, 1475-1539)와 오오우치가의 제30대 당주 오오우치 요시오키(大内義興, 1477-1529)의 딸이 혼인관계로 맺어

26) 寺石正路(1934), p.183

27) 케이안은 명조에서 귀국한 후 사람들에게 “주자학이 아닌 것은 학문이라 할 수 없고, 여산이 아닌 산은 산이라 할 수 없다(不宗朱子元非學, 看到匡廬始是山)”라고 선언했다. 寺石正路(1934), p.185

28) 寺石正路(1934), pp.184-185

29) 松岡久人(2011), pp.7-29

졌고, 이치조 후사이에가 초대도사국사권대납언(初代土佐国司権大納言)이 되었는데, 그가 도사 이치조씨의 시조이다. 또한 이치조 후사이에의 삼남 이치조 요시후사(一条義房, 1524-1543)는 제 31대 당주 오오우치 요시타카(大内義隆, 1507-1551)의 양자로 들어갔다. 추고쿠지방과 시코쿠지방의 유력 호족이었던 양가는 이렇듯 혼인 및 양자 관계로 맺어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오오우치씨 멸망에 이르러 오오우치씨 일족과 미나미무라 바이켄과 같은 가신들이 도사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나미무라 바이켄은 오오우치씨 실록 「大内殿有名衆」에 有梅軒 또는 南村梅軒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sup>30)</sup> 아마구치에서 오오우치씨의 지원으로 번성한 스오우 지역의 학문을 담당하는 유자였다.<sup>31)</sup> 「大内義隆伝」에 의하면 1538년 10월 조선 예조참판 임권에게 주자 신주 오경대전과 물시계를 요청한 이가 미나미무라 바이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아마자키 안사이가 도사 큐코사에 갔을 때에는 미나미무라 바이켄의 제자인 선승 타니 지쥬(谷時中, 1598-1650)를 비롯하여 소장(家老) 가로(家老) 노나가 켄잔(野中兼山, 1615-1664), 오구라 산세이(小倉三省, 1604-1654) 등이 모여 주자서를 연구하고 있었다. 안사이도 이들과 같이 수학하였고 드디어 25세에 승복을 버리고 주자학으로 전향하게 되었으며 29세에 정식으로 환속(還俗) 하여 처음으로 유자(儒者)를 자칭하게 되었다.<sup>32)</sup>

주자학으로 전향한 아마자키 안사이는 31세에 「關異」를 저술하여 불교를 배격하였는데 안사이는 일본에서 불교가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로 일본의 유자가 인륜의 도를 밝힐 식견도 기예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경학파(京学派)의 학풍을 공격했다. 그리고 인륜의 도를 밝히기 위해 33세에 「白鹿洞学規集註」를 저술하였다.<sup>33)</sup> 38세에 처음으로 교토에 학교를 열었는데 그 즈음에 안사이의 학문도 성숙하여 다른 경학제가(京学諸家)의 주자학자에 대항하는 독자적 학풍을 이룰 수 있었다. 40세에 「倭鑑」 편찬의 뜻을 세웠는데 「倭鑑」은 주자의 인륜도덕설, 대의명분설에 기초하여 새로운 사관으로 일본사를 다시 쓰려고 한 것이다.<sup>34)</sup> 그 후 안사이의 학문은 정돈 보강되어 대성해 갔고 자기 수양의 학문으로부터 사회적 활동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1658년 41세에 처음으로 에도에 들어가 이노우에 마사토시(井上正利, 1606-1675), 카토

30) 寺石正路(1934), p.211

31) 寺石正路(1934), p.213

32) 阿部吉雄(1965), p.239

33) 이 「白鹿洞学規集註」의 서문에는 안사이가 이퇴계의 「自省錄」을 읽고 느낀 감동이 서술되어 있다. 近ごろ李退溪の「自省錄」を見るに、これ(「白鹿洞学規」)を論ずること詳かなり。(中略)我が国小大の書(「大学」「小学」)家々伝へ人々誦し、而も能く之を明らかにする者、蓋し未だ其の人を聞かず。是れ世遠く地去るの由か。然りと雖も、退溪の如きは朝鮮数百載の後に生まれ、而も洞遊面命に異るなければ、我も亦感發して興起すべしと云ふ(『白鹿洞学規集註』序)。阿部吉雄(1965), p.241

34) 「倭鑑」에 관해서는 小沢栄一(1974)를 참고.

야스요시(加藤泰義, 1629-1668) 등 제후의 스승이 되었고 이때부터 매년 일년의 반은 에도에 머무르게 되었다. 특히 다이로(大老)이며 토쿠가와 막부 제4대 쇼군 토쿠가와 이에즈나(徳川家綱, 在1651-1680)의 숙부였던 아이즈후 호시나 마사유키(会津侯 保科正之, 1611-1673)의 스승이 되어 그의 명성은 세상에 퍼졌고 문인이 6천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 호시나의 사후에는 오로지 저작과 교육에 전념하였고 1682년 생애를 마감했다.

#### 4. 야마자키 안사이와 존왕론

조선왕조와 오오우치씨와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조선의 서적, 즉 주자신주가 당시 야마구치 지역으로 전해졌고,<sup>35)</sup> 이 주자신주를 토대로 미나미무라 바이켄이 주자학을 연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나미무라 바이켄은 시코쿠 고치(高知)지역으로 이주하여 고치 큐코사에서 주자학을 강의하였고 그의 제자인 선승 타니 지츄, 도사의 가로 노나가 켄잔 등이 조선주자학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들의 영향을 받아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일본유학사의 한 획을 그은 대유학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야마자키 안사이는 조선의 거유(巨儒) 이퇴계(李退溪, 1501-1570)의 주자해석에 공명하고 이를 섭취하였다. 고치 큐코사는 조선주자학을 연구하는 연구회가 자생하고 있었고 야마자키 안사이도 이 연구회에서 주자학을 배웠고 그 저술 중에서 이퇴계를 인용한 곳이 수십 곳에 이르고 있다.

한편 조선에서는 1543년 『朱子大全』이 공식 출판되자 교학의 일반화가 일거에 진행되어 주자학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단칠정논변(四端七情論弁)’으로 이황(李滉, 退溪)과 기대승(奇大升, 高峰)사이에 벌어진 논변이 일치논변(1559-1567)이다.<sup>36)</sup> 그 내용은 주자의 이기론에 입각한 심성논변이었는데 이후 조선왕조 사상계를 지배한 가장 핵심 의제가 되었으며 퇴계학과(退溪學派), 율곡학과(栗谷學派)라는 학파의 등장과 봉당 정치(朋黨政治)·예송론(禮訟論) 등의 근거가 되었다. 이 논쟁에서 이퇴계는 ‘四端, 理發而氣隨之. 七情, 氣發而理乘之’ 즉 ‘四端=理發’, ‘七情=氣發’의 호발설을 주장하여 주자의 정이론(情理論)과 합치하지는 않지만 비도덕, 비인륜적인 것과의 타협불가를 끝까지 천명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도덕성을 중시하고 불의와의 타협을 허용치 않았던 퇴계에 공명하였던 야마자

35) 寺石正路(1934), p.215

36) 이이(李珥, 栗谷)와 성혼(成渾, 牛溪) 사이의 논변은 2차논변(1572-1578)이다. 사칠논변에 관해서는 김기현(2000)을 참고

키 안사이는 개인적 수양을 중시하고 대의명분설을 기본으로 인륜적 질서사회의 건설을 중시 하였던 것이다.

야마자키 안사이는 40세에 주자의 『資治通鑑綱目』의 영향을 받은 강목체 역사서인 『倭鑑』 편찬에 착수하게 된다. 안사이가 편찬에 착수한 『倭鑑』의 목록을 보면 에도시대 유자들이 「神代記」가 황당무계하다고 하여 역사기록을 「神武卷」 이후부터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역사를 신대로부터 기록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sup>37)</sup> 당시 유자들이 역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神武卷」의 신화를 안사이는 역사의 일부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야마자키 안사이는 ‘神代’를 하은주(夏殷周), ‘三代’에 필적한 시대로 여겼고 ‘예악형정(禮樂刑政)’의 존재를 일본의 역사로부터 발견하였다. 즉 일본의 상고시대에서 정주(程朱)의 도를 발견하였고,<sup>38)</sup> 신대에 만들어진 선조의 도는 군신부자(君臣父子)의 대의를 나타내는 도(=儒敎)라고 여겼다.<sup>39)</sup> 신대에서 정주의 도를 발견한 안사이는 유교와 신도를 융합시킨 유가신도인 스이카신도(垂加神道)를 제창하게 되었고 신대에 행해진 신도는 유교에서 말하는 왕도이며, 그 왕도가 지켜져 왔던 일본을 신국(神國)이라고 지칭하였다.<sup>40)</sup> 야마자키 안사이가 본 신대는 일본 역사속의 ‘三代’이며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太神)라는 성인(聖人)과 사루다히코 오오미카미(猿田彦太神)라는 성인이 다스린 ‘王道=神道’의 시기였다.<sup>41)</sup> 즉 안사이가 본 토쿠가와 일본은 중국의 ‘삼대’와 대등한 ‘신대’가 존재하고 요순(堯·舜)에 필적하는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사루다히코 오오미카미라는 성인이 다스려온 ‘王道=神道’의 나라였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中國)’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나라였던 것이다.<sup>42)</sup> 그리고 안사이의 제자 아사미 케이사이(淺見絅齋, 1652-1711)는 역사적으로 군신관계의 역전인 역성혁명(易姓革命)과 왕조교체가 없는

37) 「垂加翁神說補遺」倭鑑目錄

倭鑑目錄 第一卷、一之天、天神紀。一之地、地神紀。一之人、神武紀。第二卷、綏靖紀。(중략) 第八十七卷、後村上紀。一光明紀・崇光紀・後光嚴紀・後圓融紀・後小松紀附一凡八十七卷。絶筆大書曰。後小松帝明德三年壬申冬十月朔己酉二日庚戌、三種神器入洛。

38) 「垂加翁神說」垂加翁神說卷之中、伊勢太神宮儀式序

神代之古也、猶三皇之世也。神武之皇圖也、猶唐堯之放勳也。

39) 「垂加翁神說」垂加翁神說序

日本ノ人億萬人アリトイヘドモ、皆其先祖ハ神代ニ生レ出タル人ナレバ、皆道ヲ尊信シテ君臣父子ノ大義疎ニスベカラズ。

40) 「垂加翁神說」垂加翁神說卷之上、大和小学曰

天照太神、三種の神器を瓊々杵尊にさづけて此國の主とし玉ひ、天兒屋根命をして神道をまもりて王道をおさめしめ玉ふ。されば神道王道二ならぬことは、祭政二字の和訓にてもしるべし。神國と名づけしものゆへなり。

41) 「垂加翁神說」垂加翁神說卷之中、垂加社語

天照太神者生知安行之聖人、猿田彦太神者學知之聖人也。

42) 「文会筆録」

中國ノ名ハ、各国自ラ言フ。則チ我ハ是レ中ニシテ四外ハ夷ナリ。是ノ故ニ我ハ豊葦原ノ中國ト曰フ

일본이야 말로 유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도덕예의(道德禮儀)’의 나라이며 ‘천성(天性)’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43)</sup>

이러한 야마자키 안사이의 인식에 대해 조선의 퇴계학과에 속한 유자들도 공명하고 있었던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18세기의 안정복(安鼎福, 1713-1791)은 퇴계를 존중한 남인학자인데<sup>44)</sup> 그의 사상도 안사이의 존왕론과 닮아있다. 안정복은 군주는 하늘이며 아무리 군주가 무도하다 하여도 찬탈이나 폐위는 부당하다고 여겼고<sup>45)</sup> 이러한 ‘존왕론’을 바탕으로 야마자키 안사이와 그 학파의 사상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46)47)48)</sup>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메이지 이후 황국사관의 영향 속에서 야마자키 안사이의 ‘존왕사상’은 국채론을 제창한 후기미토학과 히라다파 국학에 직접 영향을 주어 막말유신기(幕末維新期)의 ‘尊王攘夷思想’ 및 메이지유신의 사상적 원류가 되었다고 칭송받아왔다.<sup>49)</sup> 그런데 에도시대의 안사이의 존왕론은 막말유신기의 존왕론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리철학과 대의명분론을 중시한 야마자키 안사이는 유자들이 이상적 사회로 생각하고 있던 삼대(三代)의 재현을 일본역사 속에서 발견하였고, 군주는 태극(=理)의 순선무악(純善無惡)의 리이며 군주에 대한 충성이야말로 인류의 근본이라고 봤던 것이다. 그리고 역성혁명이

43) 「中国弁」

況や吾国天地ヒラケテ以来、正統ツバキ万世君臣ノ大綱不變ノコト、コレ三綱ノ大ナル者ニシテ、他国ノ不及処ニアラズヤ。其外武毅丈夫ニテ、廉恥正直ノ風天性根ザス。コレ吾国ノスグレタル所也。中興ヨリモ数聖賢出デ吾国ヲヨク治メバ、全体ノ道德禮儀、何ノ異国ニ劣コトアラン。

44) 『順庵先生文集』卷之六、書、答鄭君顯書

南渡以後。朱子之學行天下。我東則事元以來。畧知有濂洛文字。而牧園諸儒。始倡性理之說。至退陶子。集其大成。而其平生爲學也。步步朱子。心心朱子。亦東方之一朱子。而節要一書。盡其精力。則誠學者之最初用工。終身受用者也。然而近世人多不讀之。是以實學漸晦而俗學漸勝也

45) 『順庵先生文集』卷之十三、雜著、橡軒隨筆下、戶牖雜錄並附、李白沙。

盖君者天也。君雖無道。豈可篡廢。

46) 『順庵先生文集』卷之二、上星湖先生書、戊寅

其國亦有忠義之士。常憤東武 武藏州。關白所居。之雄剛。西京 山城州。倭皇所居。之微弱。欲有所爲。而但六十六州太守家眷。皆爲關白質子。故不敢發。前有山闇齋及其門人淺見齋者。議論以許魯齋仕元爲非。今有淺見門人姓若名新鏡者。字仲淵號脩齋。好學善談論。自比於岳飛、方孝孺。恒有興復西京之志。然則果奇士也。

47) 『順庵先生文集』卷之十九、倭國地勢說、戊寅

而其國中東武西京之相爲仇敵久矣。關白在東都江戶。主武事。倭皇在西都倭京。主文事。自倭皇失位。關白專政以後。兩都仇視。而力弱不敢動云。亦豈無忠臣義士積憤含痛。欲復僞皇之位而不得者乎。苟使我得天而得人。內治有餘。外攘不難。知彼知己。十分料量。始以尺書告關白。以君臣大義。使之釋權復位。彼必駭然。舉國洶洶。又傳檄九州。又傳檄其國中。其國之相從者。亦且半之。討其罪而正其名。是亦天下之義舉。而所謂一勞而永逸者也。

48) 『順庵先生文集』卷之二、上星湖先生書、戊寅

一姓相傳。至今不已。是中國聖王之所不能者。誠爲異事。而封建之法能行焉。且其器械之精妙。制度之一定。則不可以蠻夷忽之也。若文之以禮樂。則誠海中之樂土也。

49) 丸山真男(1980)、pp.607-608

없는 일본역사를 군주의 ‘덕치(德治)’가 완성된 이상적 사회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신대중시, 무역성혁명에 주목한 아마자키 안사이의 사상은 인륜도덕을 근본으로 하는 유교적 ‘존왕론’이다.<sup>50)</sup> 아마자키 안사이가 말했던 ‘존왕’은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의 이름아래 자행된 아시아 침략과 같은 폭력을 위한 사상이 아니라 인간 윤리 회복을 위한 도덕 사상이 그 근저에 있었던 것이다.

## 5. 나가며-존왕론의 탄생과 굴절

아마자키 안사이 주자학의 특징은 대의명분(大義名分), 절의(節義) 중시와 왕통과 신대를 존중하는 존왕사상이다. 아마자키 안사이의 이러한 존왕사상은 토쿠가와 막부말기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는 ‘막말유신기’에 막부를 타도하고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젊은 무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결국 이들이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유신을 주도하여 메이지일본이 탄생하게 된다.

메이지유신에 의한 왕정복고령에 따라 메이지 원년(1868) 7월에 중앙정부로부터 신불분리령(神佛分離令)이 공포되었다. 그것은 종래의 신불습합(神佛習合)을 폐지하고 신사의 순수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신도만이 일본고유의 종교라고 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일본문화를 풍요롭게 해 왔던 불교를 하루아침에 외래사상이라고 배격하고 사찰과 불상을 파괴하는 광신적인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광풍이 전국적으로 휘몰아치게 된다. 이른바 ‘폐불훼석(廢佛毀釋)’ 운동이다. 그 중에서도 도사, 사츠마(薩摩), 오키(隱岐), 마츠모토(松本), 토야마(富山), 이세(伊勢), 사도(佐渡), 미노(美濃) 등에서는 철저한 ‘폐불훼석’이 행해져 사찰을 불태우고 불상과 불구 등이 파괴되고 소실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폐불훼석의 광풍 속에서 일본 주자학 남학파의 발상지이자 아마자키 안사이가 존왕론을 탄생시킨 도사 제일의 사찰 큐코사도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지금의 큐코사는 이 폐불훼석의 광풍이 잦아든 후 재건된 것이다.<sup>51)</sup>(<사진1>, <사진2>)

이러한 폐불훼석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다름 아닌 막말 유신기에 아마자키 안사이의 ‘존왕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었다. 부처의 자비를 깨닫기 위해 우라도만이 보이는 오대산 기슭에 세워진(<사진3>), 아마자키 안사이가 이퇴계의 주리철학의 영향을 받아 존왕론이 탄생한 공간

50) 아마자키 안사이의 유교적 존왕론에 대해서는 李豪潤(2003)을 참고.

51) 吸江寺発行(2010), pp.12-13

인 큐코사는 결국 극단적인 존왕론자 들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다.<사진4> 이러한 극단적 국수주의 국가주의는 결국 수많은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은 그 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큐코사에 세워진 충혼탑(<사진5>)과 큐코사 인근의 고치현 호국신사(<사진6>)가 그 비극적인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sup>52)</sup>

존왕론의 탄생과 굴절의 역사를 가진 큐코사는 일본주자학의 발상지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춘추전국시대의 혼란기에 인(仁)과 예(禮)의 정치를 논했던 도덕론인 유교가, 국수주의 국가주의로 변질되었을 때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의 현장으로서의 의미도 있는 곳이기도 하다.

52) 현재 큐코사에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고치지역 출신 전몰 일본군의 충혼탑이 세워져 있으며 인근에는 전몰 일본군을 위령하는 고치현 호국신사도 세워져 있다.



&lt;표1&gt;53)

연월	왕대	통교자	통교이유
1395.12	태조4	大内義弘	土物 헌상
1396.3	태조5	大内義弘	『大藏經』 요청
1397.7	태조6	大内義弘	왜구 금압 약속
1397.11	태조6	大内義弘	토물 헌상
1398.12	태조7	大内義弘	『대장경』 요청
1399.5	정종원	大内義弘	토지 하사를 요청
1403.2	태종3	-	-
1404.7	태종4	大内盛見	禮物 헌상
1407.2	태종7	大内盛見	奉書
1407.7	태종7	大内盛見	『대장경』 요청
1408.7	태종8	大内盛見	피로인 송환 등
1409.윤4	태종9	大内盛見	『대장경』 요청 등
1411.10	태종11	大内盛見	『대장경』 요청
1413.9	태종13	大内盛見	토물 헌상
1414.7	태종14	大内盛見	『大般若經』 大鐘 요청
1415.7	태종15	大内盛見	『대장경』 요청
1416.8	태종16	大内盛見	『대장경』 요청
1417.9	태종17	大内盛見	『대장경』 요청 등
1418.8	태종18	大内盛見	『대장경』 요청 등
1422.7	세종4	大内盛見	土宜 헌상
1422.7	세종4	大内盛見	토의 헌상
1423.10	세종5	大内盛見	태종 조문
1430.윤12	세종12	大内盛見	쌀, 표범가죽을 요청
1440.8	세종22	大内持世	새롭게 지은 절을 위한 『대장경』 요청
1443.12	세종25	大内教弘	大内持世의 奠物 사례. 香積寺 『대장경』 요청
1444.7	세종26	大内教弘	『대장경』 하사에 대한 감사
1445.2	세종27	大内教弘	전년의 후의, 『대장경』 하사에 대한 감사
1446.6	세종28	大内教弘	『대장경』 요청
1447.12	세종29	大内教弘	왕비 조문

53) 『朝鮮王朝實錄』에 대내전(大內殿)으로 나타나는 오오우치씨 관계 기록은 태조 4년(1395)-선조 36년(1603)간 249건이 보인다. 본 표는 조선왕조실록의 오오우치씨와의 중요 교역 기록과 須田牧子(2011), pp.39-41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452.3	문종2	大内教弘	토물 헌상
1453.6	단종원	大内教弘	進香, 임성태자가 일본에 들어간 기록을 요청함
1457.3	세조3	大内教弘	토물 헌상
1459.정	세조5	大内教弘	토물 헌상
1459.2	세조5	大内教弘	糶米 요청
1461.10	세조7	大内教弘	물소 헌상
1461.12	세조7	大内教弘	토물 헌상
1464.8	세조10	大内教弘	토물 헌상
1473.8	성종4	偽使	교토 清水寺 재건 자금 요청, 토산물 헌상
1474.7	성종5	偽使	遣明船 준비 자금 요청
1478.정	성종9	偽使	명주 1만필 요청
1479.4	성종10	大内政弘	長門安國禪寺를 위한 『대장경』을 요청
1483.9	성종14	大内政弘	1479년 『대장경』하사 감사. 承天寺 자금 요청
1485.8	성종16	大内政弘	普門禪寺를 위한 『대장경』 요청
1487.6	성종18	大内政弘	長谷寺를 위한 『대장경』 요청
1490.9	성종21	大内政弘	紀州安樂寺를 위한 『대장경』 요청
1493.8	성종24	大内政弘	군자금 요청
1494.11	성종25	大内政弘	군자금 요청
1499.4	연산군5	大内善興	특산물 헌상
1502.12	연산군8	大内善興	원숭이, 말을 헌상
1511.4	중종6	大内善興	삼포왜란 처리
1512.9	중종7	大内善興	-
1516.5	중종11	大内善興	진향
1524.8	중종19	大内善興	寧波의 난 처리?
1525.4	중종20	大内善興	-
1528.7	중종23	大内善興	중국 指揮 袁希玉 등의 중국 전송 요청 등
1535.7	중종30	大内義隆	-
1537.10	중종32	大内義隆	-
1539.8	중종34	大内義隆	-
1540.12	중종35	大内義隆	-
1547.11	명종2	大内義隆	-
1551.10	명종6	大内義隆	-



<사진1> 큐코사 입구  
(큐코선사 표석과 고치 평화 파고다(충혼탑) 표석이 보인다.)



<사진2> 폐불훼석 이후 새로 재건된 큐코사 본전과 충혼탑  
(도사 제일의 사찰이라는 명성을 찾아보기 힘든 초라한 모습이다.)



<사진3> 큐코사에서 바라 본 우라도만



<사진4> 큐코암적 표석



<사진5> 큐코사에 세워진 충훈탑



<사진6> 큐코사 인근의 고치현 호국신사

# 【參考文獻】

## <자료>

『高麗史』  
『順庵先生文集』  
『朝鮮王朝實錄』  
「中国弁」  
「垂加翁神説補遺」  
「垂加翁神説」  
「文会筆録」

## <한국어>

국사편찬위원회편(1995)『한국사22』탐구당  
이호윤(2014)「근세 동아시아 사상공간과 후지와라 세이카」『일본근대학연구』46  
김기현(2000)『조선조를 뒤흔든 논쟁』上·下, 길

## <일본어>

阿部隆一(1980)「崎門学派諸家の略伝と学風」『日本思想大系』31、岩波書店  
阿部吉雄(1965)『日本朱子学と朝鮮』東京大学出版会  
李豪潤(2003)「山崎闇斎の神代認識に関する一考察」『立命館史学』24  
小沢栄一(1974)「『倭鑑』をめぐる諸問題」『近世史学思想史研究』吉川弘文館  
吸江寺発行(2010)『土佐坊踏雲』弘文印刷株式会社  
須田牧子(2011)『中世日朝関係と大内氏』東京大学出版会  
寺石正路(1934)『南学史 I』富山房版  
中村栄孝(1965)「室町時代の日鮮関係」『日鮮関係史の研究』上『吉川弘文館  
橋本雄(2010)「対明・対朝鮮貿易と室町幕府—守護体制」『日本の対外関係4・倭寇と「日本国王」』吉川弘文館  
松岡久人(2011)『大内氏の研究』清文堂出版  
丸山真男(1980)「闇斎学と闇斎学派」『日本思想大系』31、岩波書店  
和辻哲郎(1952)『日本倫理思想史』下巻、岩波書店、pp.421-422

---

논문투고일 : 2017년 03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5월 07일  
2차 수정일 : 2017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5월 16일

---

## 〈要旨〉

### 일본 주자학과 큐코사(吸江寺)

- 존왕론의 탄생과 굴절 -

이호윤

큐코사는 일본 주자학 남학파의 발상지이며 존왕론을 주창한 주자학자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의 사상이 형성된 곳이다. 남학파는 조선전기 조선과 활발한 교류한 일본 야마구치(山口)지역의 실력자 오오우치(大内)가문의 가신 미나미무라 바이켄(南村梅軒)이 시코쿠 고치(高知)지역으로 이주하여 주자학을 강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야마자키 안사이는 이퇴계(李退溪)의 주자해석에 감명을 받아 승려의 신분을 버리고 주자학자로 거듭났으며 대의명분(大義名分), 절의(節義) 중시와 왕권을 존중하여 존왕사상으로 불리운다. 야마자키 안사이의 이러한 존왕사상은 ‘막말유신기’에 막부를 타도하고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젊은 무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메이지일본이 탄생하게 된다. 메이지 원년(1868) 7월 신불분리령(神佛分離令)이 공포되고 절과 불상을 파괴하는 ‘폐불훼석(廢佛毀釋)’ 운동이 전개된다. 폐불훼석의 광풍 속에 일본 주자학 남학파의 발상지인 큐코사도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폐불훼석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다름 아닌 ‘존왕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야마자키 안사이가 조선 유학의 영향을 받아 존왕론을 형성한 공간이 결국 극단적인 존왕론자들에 의해 파괴된 것이다. 큐코사는 일본주자학의 발상지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도덕론인 유교가, 국수주의 국가주의로 변질되었을 때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의 현장으로서의 의미도 있는 곳이기도 하다.

### The Japanese Neo-Confucianism and the Kyukoji Temple

- The Origination and Variation of the Royalism -

Lee, Ho-Yun

Kyukoji Temple is the cradle of the Southern school of the Japanese doctrines of Chu-tzu and is the place where the thought of the doctrines of Chu-tzu scholar Yamazaki Ansai (山崎闇齋) who advocated the theory of the respect for king was formed. The Southern school of the Japanese doctrines of Chu-tzu was initiated with Minamimura Biken (南村梅軒) who was a vassal of the family of the powerful person Ouchi in Japan's Yamaguchi area that actively exchanged with Joseon in the former half period of Joseon moving to Shikoku Kochi area and giving the lectures on the doctrines of Chu-tzu. Yamazaki Ansai was deeply touched by Yi Toe-gye (李退溪)'s interpretation of the doctrines of Chu-tzu and was born again as a scholar of the doctrines of Chu-tzu deserting the status of Buddhist monk, and as he placed emphasis on justification (大義名分) and integrity and fidelity (節義) and respected the royal authority, he is called a theorist of the respect for king. Such a theory of the respect for king of Yamazaki Ansai was actively accepted by the young samurais who overthrew Japan's feudal government and insisted on the royal restoration in the last period of Japan's feudal government and in the period Restoration Meiji, and then Meiji Japan was born. In July in the first year (1868) of Meiji, the decree for separation of gods from Buddhas was announced and 'Haibutsukisyaku (廢佛毀釋)' movement that destructed Buddhist temples and the statues of the Buddha was developed. In the gale of Haibutsukisyaku, the cradle of the Southern school of the Japanese doctrines of Chu-tzu, Kyukoji Temple disappeared in the world. By the way the people who took the lead of such Haibutsukisyaku movement were none but those who were influenced by the 'the thought of the respect for king', after all the space where Yamazaki Ansai formed the theory of the respect for king being influenced by the Joseon Confucianism was destructed by the drastic theorist of the respect for king. Kyukoji Temple is significant as the cradle of the Japanese doctrines of Chu-tzu but it is also significant as the scene of lesson which tells that what tragic result the ethic Confucianism brought about when it was degenerated into ultranationalism and/or statism.